

2014년 교회 재정 세미나

공개해도 괜찮아

헌금의 공공성과 재정의 투명성

일시 || 2014년 11월 14일(금) 오후 2시

장소 ||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조에홀

주최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www.cfan.or.kr



Church Financial Accountability Network
교회 재정건강성운동

■ 행 사 순 서

사회 || 황병구 본부장(재단법인 한빛누리)

- 14:00-14:10 인사말

- 14:10-14:40 주제 강연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교회의 공공성’
- 교회 재정 투명성의 신학적 전제

이형기 교수(공적신학과교회연구소 소장, 장신대 명예교수)

- 14:40-15:30 패널 토의 ‘공공재로서의 교회재정’에 대한 좌담

김재수 장로(샘물교회 사무처장)

정성규 목사(예인교회)

이형기 교수(공적신학과교회연구소 소장, 장신대 명예교수)

- 15:30-16:00 질의 응답

■ 목 차

- 인사말 7p
- 주제 강연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교회의 공공성’ 8p
– 교회 재정 투명성의 신학적 전제
이형기 교수(공적신학과교회연구소 소장, 장로회신학대학교 명예교수)
- 패널 토의 ‘공공재로서의 교회재정’에 대한 좌담 31p
김재수 장로(샘물교회 사무처장)
정성규 목사(예인교회)
이형기 교수(공적신학과교회연구소 소장, 장로회신학대학교 명예교수)
- 단체 소개 33p

행사 취지 안내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투명한 재정 관리’

누구나 들으면 필요성을 공감하는 용어임에도 우리에게는 요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 내부적으로도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원인이 되고 교회가 외치는 복음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물음표를 던지게 만든 상황의 한 요인입니다.

교회가 재정을 공개하는 것은 1) 재정관리에서 오류와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연합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작점을 만들고 2) 구성원간 상호 신뢰를 가지게 하고 3) 나아가서 교회의 언행에 신뢰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큼니다.

그 동안 깊게 논의하지 못했던 사안을 이제 수면위로 올립니다. 오늘 행사는 교회의 재정이 투명해야 하는 이유와 의미들을 공감해보는 자리이며, 나아가서는 앞으로 시작할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법론적 고민들의 시작점입니다.

작은 몸짓이지만 건강함을 향한 열망들이 모아지기를 바라며, 많은 질책과 조언 뿐 만 아니라 격려도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 제 강 연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교회의 공공성

교회의 재정투명성의 신학적인 전제

이형기 교수(공적신학과교회연구소 소장,
장로회신학대학교 명예교수)

들어가는 말

본 논고의 목적은, 교회의 재정투명성과 공공성의 근거를 ‘복음’ 자체의 공공성과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에 근거한 ‘교회의 공공성’에서 찾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서구와 한국의 기독교 역사 모두에서 ‘교회와 신학’의 사사화의 역사를 돌이켜 보고, ‘공적 신학의 역사적 기원’을 추적하며, 레슬리 뉴비긴의 신학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야기’의 공공성을 소개한 다음에, ‘IV.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야기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공동체’에서는 성서의 하나님 나라 복음 이야기가 신망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창조한다고 하는 주장을, 그리고 끝으로 ‘V.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에 비추어 본 ‘교회와 세상’의 공공성’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교회와 세상’의 공공성’ 차원을 제시하려고 한다.

I. 기독교의 사사(私事)화

1. 글로벌화와 주변화

글로벌화는 대체로 18세기 계몽주의시기로까지 소급한다. 이 시기 동안에 데카르트와 뉴턴에 의한 과학혁명으로 과학과 기술이 인류사회를 지배하게 되었고, 데카르트와 칸트의 철학혁명으로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지성과 의지가 이 세계의 주체

가 되었으며, 미국혁명과 프랑스 혁명으로 인권과 자유와 평등과 같은 시민사회적인 민주주의적 가치가 인류사회를 지배하였고,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발달과 제국주의로 말미암아 유럽 발 글로벌화는 미국과 유럽의 피식민지 국가들로 널리 그리고 크게 확산되었다.

특히, 자본주의의 역사에 있어서 1920-1945년까지는 자유주의 진영의 복지국가와 공산진영의 국가 주도적인 기획경제가 지배적이었으나, 냉전 시대를 잇는 1960년대부터 탈냉전시대로 돌입하는 1990년대는 ‘신자유주의’ 시대와 ‘후기 산업사회’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로 패러다임 이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주변화(빈익빈 부익부), 환경의 주변화, 그리고 교회 및 기독교 신학의 주변화를 초래하였다. **무엇보다도 교회와 기독교 신학은 공적인 영역으로부터 밀려나 주변화되었고, 사사(私事)화되었으며, 소외되었다.** 적어도 중세 서유럽의 기독교 세계는 인간의 요람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삶을 지배하였고, 사회의 규범과 국가의 행동까지도 제어하였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기독교의 소외와 사사화와 주변화 상황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상에서 언급한 18-19세기의 모더니즘과 ‘신자유주의의 글로벌화’ 과정에서 기독교의 사사화(privatization) 혹은 주변화(marginalization)를 발견한다. 성경과 교회의 신학이 하나님의 세계(God's world)의 공적인 일들로부터 사사화 혹은 주변화 되었다고 하는 말이다. 자연과학과 기술이 추구하는 ‘사실적 세계(the factual world)’는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이 추구하는 세계를 이룰 수도 있고 저를 수도 있는 ‘가치의 세계’로 보아, ‘보편적인 세계’요 ‘공적인 세계’인 ‘사실적 세계’로부터 퇴출시켰다. 그리고 18-19세기 모더니즘을 뒤 잇는 오늘의 과학과 기술문명은 과학적 진리의 세계로부터 복음진리를 변방으로 몰아냈다. 근대 유럽의 인권과 자유와 민주주의적 가치들 역시 기독교를 공적인 삶의 세계로부터 소외시키고 주변화시켰다. 나아가서 ‘신자유주의의 글로벌화’ 역시 시장논리를 절대화한 나머지 기독교를 변방으로 내몰았다. 따라서 우리가 논하는 ‘교회공적책임의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근거’의 목적은 이처럼 공적인 세계로부터 사사화되고 주변화된 기독교를 다시 하나님의 세계 한복판 혹은 공적인 삶의 세계 한복판으로 진입시키는 일에 있다 하겠다.

대체로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그리고 칼뱅의 ‘하나님의 도성 대 땅의 도성’, ‘그리스도의 왕국 대 세상 왕국’, 혹은 ‘교회 대 세상’의 이분법적인 구도는 18-19세기 복음주의 부흥운동과 복음전도 활동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까지 전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전통은 “제한속죄” 전통에 입각하여 구원받은 공동체를 나머지 인류 및 창조세계로부터 게토(ghetto)화시켰다. 환언하면, 아우구스티누스의 “두 도성” 전통 혹은 루터의 “두 왕국” 전통은 하나님의 보다 넓은 일터를 망각하게 만들었고,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상(God's world)로부터 도피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세상에서 ‘공적책임수행’을 외면하는 경향 역시 이상과 같은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의 사사화와 주변화 때문일 것이다.

2. 한국교회의 상황

첫째로 교회와 세상의 적대관계이다. 한국개신교는 교회를 노아의 방주 유형이나 구명(救命)선으로 여기는 경향이 짙다. 이러한 경향은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켜서 교회를 “세상이라는 바다”에 떠 있는 외딴 섬으로 만들어 왔다. 또한 한국개신교는 죄와 죽음의 힘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가르치며, 사단과 마귀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은 최후심판과 지옥을 향하여 내달린다고 보면서 이러한 세상과 단절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가르쳤다(요 7:7; 요 8:23; 요 17:16). 이것이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교회중심주의를 낳았다.

둘째로 영혼과 몸을 갈라놓는 이분법이다. 한국개신교는 영혼구원을 강조하면서 복음전도를 “구령사업”이라 가르쳤다. 그러다보니 개인의 영혼구원에 치우쳐서 몸과 육체의 영역을 소홀히 여겼다. 전인(全人)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만의 구원을 강조했다. 영혼과 몸을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신앙을 지배한 결과, 영혼과 영적인 것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몸의 영역에 속한 역사적이고 사회 문화적인 가치를 업신여기거나 소홀히 여겼다. 이러한 이분법이 교회의 공적인 책임수행을 방해했다.

셋째로 물량적 교회성장주의이다. 한국개신교는 특별히 산업화시대(1960-90년대)의 시대정신인 성장이데올로기와 맞물려서 교회성장에 몰입하며 외형적으로 그 몸집을 불려왔다. 그러다보니 한국개신교는 물량적 성장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성장주의는 하나님나라의 자람(마태 13장)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사랑의 교회 건축문제’도 이와 같은 맥락 속에 있다.

넷째로 mammon의 지배로 사유화되려는 영생과 하나님나라이다. 한국개신교의 성장은 자본주의 사회체제 속에서 진행되었다. 권력의 비호아래 권력과 결탁해 온 한국 자본주의체제는 공공(公共)의 안녕(安寧)과 질서를 추구하기 보다는 대체로 특권층을 양산하고 기득권층을 보호해왔다. 이러한 사회현실을 향해 교회가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오히려 한국교회 대다수는 mammon의 지배에 예속되어서 자주 기득권층을 대변하였다. 이러한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나라를 위한 공적책임을 결코 수행할 수 없었다.

그런즉, 우리 한국 개신교는 세상에 대한 적대관계, 영혼과 몸의 이분법, 개인구원과 영혼구원, 개 교회주의와 교회 성장주의, 그리고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사유(私有)화로 인하여 하나님의 드넓은 작업장인 이 세상에서의 교회의 공적책임 수행에는 너무나도 미흡하였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에큐메니칼 운동과 교회의 공적책임 수행에 대한 저해요인들이다.

이학준 박사는 그의 『한국교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산다(서울: 새물결플러스, 2011, p48-69)』에서 한국교회로 하여금 공적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3가지 요인들을 지적한다. 하나는 “양적 성장과 축복” 그리고 “배금주의와 성공주의”이고, 둘은 봉건주의적이고 전 근대주의적이며 권위주의적인 개인윤리로 인하여 오늘의 변화된 한국사회, 즉 민주화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참여적인 사회에서 오늘의 젊은이들과 “현실 적합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며, 셋은 미국의 빌 하이벨스, 릭 워런, 그리고 조엘 오스틴의 영향으로 오늘날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영

합주의는 시장경제라고 하는 세속적 가치들과 같은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복음과 기독교의 심오한 본질에 가 닿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와 같은 한국교회의 현장을 위기로 보고 그것은 다른 아닌 “공적 영성의 결여” 때문이라고 강하게 주장한다. 다시 정리하면, “기복주의, 기족주의, 개교회주의, 성장논리와 우상숭배, 이분법적인 사고, 이성(理性)경시경향, 단순논리주의”가 “공적 영성의 결여”를 초래하였다고 본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개신교는 그 동안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일터인 이 세상에서 공적인 책임들을 많이 수행해 왔다. 일찍이 한국의 기독교는 계몽차원에서 민족의 희망이었고, 한글을 보급하였으며, 최초의 근대식 병원을 세웠고, 평등사상을 고취시켰으며, 교육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해 왔다. 그리고 일 부일처제와 여권신장에 힘써 왔고, 3·1운동과 같은 나라 살리기 운동에도 동참하였으며, 신사참배운동에도 항거하였다. 나아가서 1970년대의 반독재운동과 1980년 남북평화통일운동에도 앞장섰고, 장기기증운동과 태안 앞바다 기름제거 운동에도 두각을 나타냈다. 그리고 최근 경기도 여주의 ‘아가페 소망 교도소’를 세운 것도 우리 한국 개신교의 공적 책임 수행의 일부일 것이다. 한국교회의 공적책임의 증인들은 구름떼 같이 허다하다. 임희국 교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한국 개신교 130년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한국교회는 각 시대마다 대체로 교회의 공공성과 사회 공적 책임을 의식하여 복음을 증언했다고 본다. 이를 통하여 개신교(장로교) 교회들은 자주 하나님의 카이로스(kairos)에 참여하며 시대정신을 인도하고자 했다고 생각된다.¹⁾

우리는 이상에서 근대 서양의 기독교 역사와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복음과 교회와 기독교 신학이 어떻게 사사화 되었나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와 역사와 문화와 창조세계 자체가 복음과 교회와 기독교 신학의 공공성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II. 공적신학의 기원과 역사

이상에서처럼 기독교가 인류 공동체의 공적인 세계로부터 퇴거하여 게토화되는 상황에서 공적인 신학이 요청되었다. 1960년대에 종교사회학자인 벨라(Robert Bellah)가 그의 논문 “미국에 있어서 시민종교”(1967)에서 시민종교를 “사회에 일반화된 공적 종교”라고 부름으로써, 그리고 시카고 대학의 교회사가인 마틴 마티가 1970년대에 라인홀드 니버의 공헌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공적인 신학”(a public theology)이란 말을 처음 사용함으로써, “공적 신학”이란 말이 등장하였다. 오늘날

1) 임희국, “한국교회, 시대정신의 인도자”, 『한국교회, 개혁의 산을 넘어서』, 전국은퇴목사회(서울: 한국 장로교출판사, 2012), 67 이하.

세계적으로 다양한 교회의 다양한 신학자들이 다양한 공공신학을 펼치고 있다. 로마가톨릭신학자(David Tracy), 성공회의 신학자(John Atherton), 루터교 신학자(Robert Benne), 개혁신교회 신학자(Ronald F. Thiemann와 Duncan B. Forrester), 그리스도 연합교회 신학자(Max L. Stackhouse), 그리고 16세기 좌경화 종교개혁 전통을 잇는 신학자(Stanley Hauerwas) 등이 다양한 공공신학을 펼쳐내고 있다. 그리고 몰트만 역시 『세속사회를 위한 하나님』(1997) 등 그의 저서들에서 모더니즘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모더니즘 전통의 공적 차원을 살려내고 있다.²⁾

Ⅲ. 성서의 ‘하나님 나라 복음’ 이야기의 공공성

1. 내러티브 신학의 기원과 역사

대체로 우리는 이레네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한 고대 교부들과 16세기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칼 바르트를 비롯한 현대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에게서 내러티브 신학을 발견한다. 한스 프라이는 *The Eclipse of Biblical Narrative*³⁾에서 중세와 17세기 그리고 미국의 구프린스턴 신학 및 20세기 초 근본주의 개신교 신학에서 성경적 내러티브가 일식 현상을 보였다고 말한다. 대체로 한스 프라이와 조지 린드백 ‘신 예일학파’의 내러티브 신학 원조들로 알려 졌으나, 헌징거는 칼 바르트와 발트아살(Hans Urs von Balthasar) 그리고 레슬리 뉴비긴을 ‘후기 자유주의 신학’(postliberalism)이라하며, 내러티브 신학이 다만 ‘신 예일학파’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⁴⁾

2. 레슬리 뉴비긴의 내러티브 신학에 따른 ‘복음 이야기’⁵⁾

ㄱ. 『성서 전체를 꿰뚫어 보기』(1999)

먼저 이 글은 1989년의 그의 라디오 방송을 모아 놓은 *A Walk Through The Bible*(1999)⁶⁾에 나타난 그의 성서적 내러티브 신학을 소개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이 글이 본 저서의 주제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다.

(1) 창조와, 아담과 하와의 타락

뉴비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의 후손들의 증언으로서 하나님의 창조(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행동은 자신의 백성을 애급 제국으로부터 구

2) 참고: 이형기,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논의에 비추어 본 몰트만 신학』(서울: 한울출판사, 2006).
3) 참고: Hans Frei, *The Eclipse of Biblical Narrative*(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4).
4) George Hunsinger, “Postliberal Theology”, In op. cit., ed. by Jevin J. Vanhoozer, 45, 57.
5) 참고: 한스 프라이, 조지 린드백, 미들톤과 월쉬, 나이트(Henry H. Knight), 라이트(Christopher J. H. Wright), 보캄과 그레보(Bauchkam and Trevor)역시 성서의 이야기 신학을 주장한다.
6) Lesslie Newbigin, *A Walk Through the Bible*(Kansas City, Missouri: Bare Foot Ministries, 1999).

원하신 ‘구속주’(the redeemer God)의 사랑과 지혜의 행동을 전제하는 것으로 본다. 창조기사가 바벨론 포로 후에 증언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어둠과 구별되는 빛의 창조세계, 바다의 혼돈과 구별되는 마른 땅, 살아있는 피조물들이 성장하고 번성하는 집, 그 중 동물들과 인간들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에게 주어진 이들에 대한 특별한 책임에 대한 그림이 창세기에 제시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의 창조세계를 보살피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것을 완성시켜서 그것으로 하여금 인류와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케 해야 한다고 하신 것이다. 끝으로 제7일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우리의 삶이란 쉼 없는 투쟁이 아니라 단순히 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초대라고 말한다(14-16).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타락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알지 말고 선만 알 것을 원하셨으니,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떠난 선과 악의 구별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신뢰가 깨어졌고 상실되었으며 아담은 자신의 벗은 모습을 보고 죄책감을 느껴 무화과나무 잎 새로 옷을 해 입고 동산 나무들 사이에 숨었다. 하지만 뉴비긴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슈퍼마켓에서 어린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가 소리를 높여 아이를 찾는 모습처럼 죄책으로 인하여 동산 나무숲으로 도망치고 있는 인류를 끝까지 찾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역설한다.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그의 아들에게 담당시키시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서 전체를 통하여 자신의 어리석은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고통이 메아리치고 있다. 그리하여 결국 그와 같은 변민은 십자가상에서 들리고 있는 전율을 일으키는 절규에서 메아리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신을 반역적인 아담을 대신하여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리 떠나가 버린 우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그는 이렇게 부르짖으셨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16-18)”

우리는 위와 같은 뉴비긴의 주장에서 성서의 이야기가 인류의 ‘보편사’에 대한 해석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성서의 이야기는 인류 보편사에 대한 이야기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기 이전에 인류전체(‘보편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

(2) 하나님의 선택

뉴비긴은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일로 비롯되는, 인류역사의 비극에 대한 이야기를 “... 전 인간세계는 폭력의 소용돌이와 폭풍으로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 갔다.(20)”며, 이어서 아담을 찾아 헤매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악으로 노아의 식구를 제외하고 모든 인류에게 홍수의 심판을 내리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어 - 노아하고만 아니라 전 창조세계와도 - 다시는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고 노아의 자손이 세계를 채울 것…이라고 약속하셨다.(20)” 그런즉,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70개 열방들은 다름 아닌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성취이다. 다름 아닌 이들이 향후 하나님의 복에 대한 궁극적인 수혜자들이 될 것이었다.

그러나 또 다시 인류는 바벨탑 사건으로 범죄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나, 인내의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셨다. 그는 아브라함을 갈데아 우르로부터 불러내시어 택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새로운 류의 삶을 원하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축적한 안전들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하여 약속하신 것에 의존하는 삶인데,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22)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셨다. “…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출 3:4)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관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시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창 3:10-12).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모세는 광야에서 그렇게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약속의 산인 시내산 앞으로 회집시키고 이스라엘을 ‘왕 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출 19)로 삼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매개하였다. “이스라엘은 모든 열방들을 위한 제사장직분을 위임받았으니, 하나님의 의가 이들을 통하여 계시되도록 된 것이다.”(25) 이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십계명도 주셨다. 이 십계명의 머리말은 이스라엘을 출 애굽 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면서 계명들을 지킬 것을 명령하신다.

이상과 같은 ‘하나님의 선택’은 모두 인류의 ‘보편사’를 구속하시려는,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경세(economia)일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성서의 이야기가 다름 아닌 ‘보편사’를 위한 것이고 ‘보편사’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보편사’를 위해서 존재하고 ‘보편사’에 대한 해석과 변혁을 매개한다.

(3)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

저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열방들에 대한 통치에 대하여 갈망하고 희망하는 이야기에서, 특히 묵시문학전통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를 본다. 저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자신의 사역과 이스라엘의 진정한 소명에 대하여 구약의 이야기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하셨다고 본다. 즉, 저자는 바벨론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하여 정복되고, 고레스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하며, 느헤미아와 에스라가 성전회복의 주역을 담당하고, 또 다시 희랍제국(알렉산드리아 대왕)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정복을 당했으나, 마카비 형제가 혁명을 일으켰다고 보면서, 다니엘이 본 큰 비전을 소개한

다. 즉, 짐승들과 같은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와 희랍제국이 멸망하고 장차 “인자가 올 것인데 그에게 통치권이 주어질 것이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43)라고 하는 것이다. 바벨론 포로시기에도 이스라엘은 율법과 예언자들의 책들을 회복하여 새로운 종류의 종교적 삶의 바탕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성전의 제사종교는 여전히 지속되었고, 바야흐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종교적 삶의 중심을 이루는 회당이 생겼으니, 이 회당예배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회복과 열방 통치에 대한 희망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종교적 삶의 하나의 새롭고 활력 있는 중심이 회당에서 발견되었다. 그들은 여기에서 시편들을 찬송하고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들을 읽으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도하면서 예배를 올렸다.(43)

그리고 스가랴와 학개와 말라기는 주의 사자가 도래하시어 그의 통치를 확립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계속 붙들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로마제국의 식민지가 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남은 자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에 대한 기다림은 더욱 간절해 졌다.

바야흐로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때에, 지중해 세계와 지금의 중동에 까지 침투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희랍을 뒤로하고 이제는 로마제국의 식민지로서 그들의 나라의 왕도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45-46) 그들은 회당 예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간절히 바랐던 것이다. 이제 저자는 남은 자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취와 관련하여 예수님 당시의 애국적 민족주의자들인 열심당원들, 권력과 협조하고자 하는 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율법의 준수를 강조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공적인 삶을 등지고 수도원적 은둔 생활을 강조하는 에세네 공동체에 대하여 언급한 후에(46-48),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제국의 ‘보편사’ 속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독특한 길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복음서의 이야기를 근거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고 선포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한다. 첫째로 그는 구약(Scriptures)의 해박한 선생(랍비)이요, 둘째로 구약의 하나님을 아버지(아바)라 불렀다. 즉, 그는 구약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읽어 낼 수 있었다고 하는 말이다. 그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려 왔으나, 예언의 신빙성 있는 목소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들리지 않아 왔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의 친척으로서 하나의 새로운 예언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다시 한 번 엘리야와 같은 신빙성 있는 예언자의 목소리임을 나타내 보였다. 바야흐로 세례자 요한은 전 이스라엘의 회개를 외쳤다.(48-49)

무리들이 요한의 부름에 응답하는 바로 이 상황에서 “예수님에게는 이와 같은 부름이 아버지의 부름으로 다가왔다. 그는 죄인들과 연대하여 자신을 세례주로 허락하신다. 바로 이 세례사건은 그분의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

여 그는 하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하였고, 에스겔과 예언자들이 약속했던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셨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실 능력의 성령이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 시점으로부터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 후 즉시 예수님은 또한 성령에 이끌리시어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하시기 위한 성령 받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시험을 당하셨다.(50-51)

저자는 향후 예수님께서 계시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빵의 문제(경제), 종교의 문제(기적의 행위들), 그리고 정치권력(온 세상에 대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임을 보여주고 계신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광야에서의 시험으로부터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신 것이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새로운 점은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들을 지금 여기에서 대면하고 있다.”(52)고 하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것을 바르게 볼 수 없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신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현존(*autobasileia*)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현존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였다. 그 나라는 하나의 새로운 정부나 하나의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하나의 새로운 이념이 아니다. 그것은 철학도 아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이다. 그런즉,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그와 함께 동행해야한다.(52-53)

이상이 다름 아닌 당시 유대인들이 흥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를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상황일 것이다. 이제 저자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사역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치시고 나타내보이셨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4) “새로운 삶, 새로운 공동체들”

저자는 기독교 공동체의 기원을 ‘빈 무덤’에 누어계시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자신의 제자들을 모으시고 자신의 증인들서 온 세상 속으로 파송하신 사실”(65)에 두고 있다. 저자는 ‘부활’이야 말로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으로 성명될 수 없는 바, ‘무로부터의 창조’만이 그것의 “유비”(analogia)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부활절 사건에서 “새 창조”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 “... 부활절에 일어난 사건은 이 세상을 위한 새로운 시대(a new era)의 시작인 일종의 새 창조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에 따르는 우주 전체를 새롭게 재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의 첫 열매에 다름 아니다.”(66-67).

그리하여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모으시어, 이 세상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선포하도록 그들을 파송하셨다.”(67) 즉, 저들은 부활을 통하여 죽음과 죄

와 사단마귀가 결국 정복되었고 예수께서 창조세계와 인류 ‘보편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해야 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저들로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되었고 그분 자신이 세례에서 받으신 그 동일한 성령에 의한 기름부음을 기다리라고 하셨다. 그런즉, 저들은 오순절에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기뻐하는 가운데 ‘복음’ 이야기를 온 세상에 전파하였던 것이다.(68) 예수님은 마호메트처럼 기록된 글을 남기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부활 후 제자들의 공동체를 모으시어 성령의 강림으로 자신의 존재와 행동들을 기억하여 이야기로 증언하고 선포하게 하게 하기 위하여 저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뉴비긴의 주장에서 교회의 존재이유와 그 목적이 부활을 통하여 계시되고 약속된 우주와 인류의 ‘보편사’의 재창조를 향하여 정향(定向)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5) “미래 계시”

뉴비긴은 성서이야기 전체가 결국 한 민족인 이스라엘과 한 인간인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면서, 이들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이스라엘과 예수님께서 다름 아닌 “창조세계와 인류의 ‘보편사’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의 운반자”(the bearer of His purpose for the whole of creation and of the human race)였다고 하여, 성서의 이야기가 ‘보편사’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고 본다(73). 그는 창세기 처음 11장이 창조세계에 대하여 그리고 성서의 끝에 놓여있는 요한 계시록이 “세상의 끝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저자는 최후심판을 주장한다. 마지막 때에 한편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희랍제국과의 연장선상에 있는 로마제국과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유다의 사자’와 ‘죽임을 당한 어린양’) 사이의 갈등과 갈등의 해소가 있을 것이다. 재림하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오 ‘좌우에 날선 검’으로서 모든 죄악들을 밝히 들어내시고 ‘거룩한 도성’(계 21-22)을 은혜로 주신다. 다음의 인용은 창조세계와 인류의 ‘보편사’가 무화(annihilation)나 진멸이 아니라 새 창조의 세계로의 변형일 것이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인류에 대한 궁극적인 권위를 확립하려는 인류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인간권력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룩한 도성을 선물로 주신다. 이 도성은 아름다움에 있어서 완벽한 바, 인류의 정치 문화 예술 그리고 문명이라 불리는 모든 것, 곧 모든 형태의 인류문화가 갈망하는 모든 완전성을 체현한다. 계시록의 이야기는 땅의 임금들이 그들의 모든 보화를 그 도성 안으로 들여올 것이라고 한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그 도성은 하나의 참되고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려는 전 인류의 쟁투의 완성이다. 하지만 그것은 인류의 교만의 소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일 것이다(75).”

그런데 저자는 성서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창조세계와 인류의 보편사’의 의미와 목적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의 한 책임 있는 행동자(배우)인 개개인(the human person)에 대한 해석”으로서 개인사의 의미와 목적도 발견한다. 그는 ‘창조세계’와 인류의 ‘보편사’의 의미와 목적을 위하여 개인의 그것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요 개인사의 의미와 목적을 위하여 전자의 그것을 희생시키는 것도 아님을 지

적한다. 저자는 창조세계와 인류의 ‘거시사’(grand narratives)와 개인들과 공동체들의 ‘미시사’(micro-histories)의 조화를 보고 있다 하겠다. 문제는 그와 같은 ‘지복’의 새 창조의 세계에 동참할 수 있으며 역사의 지평 속에서 창조주와 구속주의 목적에 따라 믿음과 사랑과 희망의 삶을 살 수 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인데, 저자는 이를 기독교론적으로 풀었다.

복음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순 세상적인 관점에선 예수님의 삶이 실패로 끝났으나, 자신의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에 의하여 부활하시어 새 창조의 첫 열매로서 영광에 도달하신 것이다.(78)

그런즉, 개인의 믿음과 사랑과 희망의 삶이 새 창조의 세계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역사의 지평 속에서 큰 의미와 목적을 가질 것이라고 하는 말이다.

계시록은 우리들에게 한편 아름다움과 문명과 선한 질서를 향한 모든 인류의 쟁투의 완성이요 다른 한편 모든 눈물이 눈에서 씻음을 받고 각자가 하나님을 낮과 낮을 대하여 볼 것이며 우리들이 그분의 것이요 그분이 우리의 것임을 알 수 있는 한 장소인 하나의 도성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것은 성서가 그것의 이야기를 끝맺는 비전이다. 이 비전이야 말로 우리로 하여금 전 인류의 보편사 이야기와 이 이야기 속에서의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의미 있는 것으로 보게 하고 그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을 역사 속에서 책임 있는 행동자(배우)가 되도록 초대한다. 때문에 우리는 공적 차원에서 인간의 삶의 책임들과 고뇌들로부터 도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78-79).

정리하면, 성서의 내러티브 신학은 교회와 인류 보편사와 창조세계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보편주의적 구속신앙과 창조신앙과 특히 종말론적 전망에서 해석해 주고 있다. 우리는 이 성서 자체의 이와 같은 해석을 따라서 그리고 그것을 안경으로 사용하여 교회사와 인류의 보편사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창조세계의 의미와 목적을 오늘 21세기 상황과 결부시켜 해석해야 할 것이다.

ㄴ. 『다원사회 속에서 복음』(1989)

『다원사회 속에서 복음』(1989)에서 뉴비긴은 근대주의로 인한 유럽의 세속화 속에서 복음의 공공성을 주장한다. 뉴비긴은 기독교와 신학의 ‘사사화’(私事化)가 서유럽의 모더니즘의 모체인 계몽주의시기로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본다. 저자는 ‘너의 이성을 과감하게 사용하라’고 하는 칸트의 주장(계몽주의란 무엇인가?란에서 ‘계몽주의’란 ‘이성과 양심’을 최대한도로 사용하여 그리고 그것을 만물의 척도로 하여 ‘전통과 그것의 권위’로부터의 해방을 부르짖었다고 한다. ‘계몽주의’ 이전 까지만 해도 성서와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전통과 그것의 권위에 대한 신앙에 있어서, 신앙은 개인의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전통과 그것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의 문제였으나, ‘계몽주의’ 이후는 신앙이란 각 개인의 결단과 선택의 문제로 되었다고 한다.(219)⁷⁾

특히, 뉴비긴에 의하면 ‘계몽주의’의 과학주의가 교회와 신학을, ‘보편사’에 동일 귀속하는 공적인 삶의 영역으로부터 퇴출시켰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날 그 누구도 ‘물리학’이나 ‘생물학’을 그 어떤 개인의 사사로운 “물리학”이요 “생물학”이라 부르지 않으나, 오늘날 대다수의 인류사회는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적 표현들을 “개인적 의견의 표현들”로 보기 때문이다(220). 다시 말하면 “어떤 이가 성서와 교회의 권위에 호소할 경우, 대다수 인류사회는 그와 같은 호소를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의 표현으로 여길 것이다”(220). 말하자면, 과학과 기술의 세계는 ‘사실들의 세계’ (“factual world”)이고 성서와 교회의 가르침의 전통(종교들, 문학들, 예술들 등이 여기에 속하지만)은 ‘가치의 세계’로 보아, 전자는 사실적이고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세계이고, 후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별적이고 지역적인 사사로운 세계로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이와 같은 이분법(factual world vs. world of values)을 극복하고 성서와 교회와 신학을 다시 공적인 세계로 진입시키려고 한다.

과학의 세계에서처럼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 전통(성서와 교회의 가르침의 전통)을 수용할 때에 그것에 대한 개인적인 학습과정 후에 그것에 대한 새로운 무엇을 제안할 수 있다고 본다. 이때에 과학에서처럼 성서와 교회의 가르침을 수용하는, 믿는 자의 주관적인 혹은 개인적인 차원이 개입되게 마련이지만, 그 진리는 “보편적인 의도”(universal intent)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진리”요, “공적인 진리”(228)라고 하는 것이다.

특히,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것은 인종과 종교와 문화의 종류를 막론하고 모든 열방들에게 알려져야 한다. 그것은 공적인 진리이다. 즉,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증언이 있음으로써 그들 역시 스스로 그것이 진리임을 알게 될 것이다.(228)

그런데 만약에 기존의 기독교 전통을 전수 받은 개개 기독교인이 그 어떤 새로운 무엇을 발견하여 전통의 변형을 추구할 경우에도 그는 공동체 전체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바, 이것의 목적은 “항상 전체로서 공동체가 진리에 대한 좀 더 완벽한 이해와 진리에 의한 완전한 삶으로 전진하게 하기 위한 것이 여야 한다.”(228) 끝으로 저자는 과학에 있어서 전통과 권위와 달리 성서와 교회의 전통과 그것의 권위는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것이라고 못 박는다.

기독교 공동체의 경우, 전통이란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증언의 전통이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창조주의 목적을 계시하고 실행한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행동들은 그 자체로서 신앙이 이해하려고 애쓰는 실재이다. 이런 식으로 세상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는 단순히 하나의 이해의 전통에 ‘내주 하는 것’(dwell in)이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에

7)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1989)'으로부터의 발췌문. Lesslie Newbigin: *Missionary Theologian: A Reader*, Compiled and Introduced by Paul Weston(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2006)

대한 이야기 안에 ‘내주하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지식은 행동해 오셨고 지금도 행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228-229)

정리하면, 저자는 과학과 기독교 신앙을 대립갈등 관계로 보지 않고, 전자를 ‘사실의 세계’로 보아 후자를 전자의 세계(보편사의 일부)로부터 퇴출시켜야 하는 것으로도 보지 않으며, 그 둘 사이의 유비관계에 주목하면서 후자(기독교 신앙)가 제시하는 ‘사물들과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따라서 혹은 “창조주의 목적을 계시하고 실행하는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행동”을 표준으로 하여 과학과 기술의 세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을 주장한 셈이다. 이런 뜻에서 그는 기독교 신앙의 사사화가 아니라 그것의 공적인 차원을 힘주어 주장한다. 비록 그가 말하는 과학과 기술의 세계가 ‘보편사’의 일부요 오늘날 생태계파괴로 인하여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공공화의 일부일 것이다.

ㄷ. ‘세속화의 맥락 속에서 복음전도’(1990)

‘세속화의 맥락 속에서 복음전도’(1990)⁸⁾에서 뉴비긴은 역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공공성을 주장한다. 그는 모더니즘 전통을 통하여 문화 화되고, ‘보편사’의 일부가 되었으며, 문화사의 한 부분이 되었고, 종교사들 가운데 하나로 전략한 18-19세기 문화 종교적 기독교세계에 대한 폭탄선언과 같은 신약성서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성서 이야기의 초점이라고 주장한다.

신약성서에 있어서 첫 복음전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다. 이것은 교회의 뉴스가 아니라 세계뉴스이다. 그것은 ‘가치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실들’에 대한 것이다. 엄격히 말하여 그것은 뉴스이지만 그것은 행동에 의한 즉각적인 반응을 요청한다. … 열광도 있었고 배격도 있었다. 결국엔 배반과 정죄와 죽음이 있었다. 하나님의 통치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절망과 자살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었다. 기쁨의 폭발, 그것은 결코 은폐되어 질 수 없는 뉴스였다. 무덤은 비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죽음은 정복되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셨다. 하나의 새 창조가 시작된 것이다. … (231)

성서야 말로 진짜 이야기, 곧 우리들이 진정으로 누구이고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참 참 이야기이다. … 성서 이야기 전체의 초점은 신약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들 안에서 유일회적으로 밝혀졌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진데, 우리는 우리의 세속사회에서 이야기되어 지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에 의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다.(232)

ㄹ. ‘대회의 소명: 공적인 진리로서 복음’(1992)

‘대회의 소명: 공적인 진리로서 복음’(1992)⁹⁾에서 뉴비긴은 역시 복음의 공공성을

8) “Evangelism in the Context of Secularization”, In *Lesslie Newbigin: Missionary Theologian: A Reader*, Compiled by Paul Weston.

9) “Conference Call: The Gospel as Public Truth”(1992), In Paul Weston, op. cit.

주장한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왜 복음은 공적 진리인가? 다원사회에서 복음은 어떤 권위를 지니는가? 이와 같은 물음들은 1992년 스원워크 모임을 개최한 사람들이 미리 제시한 의제였다. 뉴비긴은 본 대회에서 ‘복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복음은 이미 일어난 일들 혹은 사건들에 대한 설명(an account)이다. 그것은 형이상학의 명제들이나 윤리와 정치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그것이 그와 같은 것을 함축하지만, 그것은 이야기되어 진 역사(narrated history)이다. 모든 이야기된 역사가 그렇듯이 그것은 그 이야기의 의미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되어 졌다. 여기에서 신앙이란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세계의 구속과 그것을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 화해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행하신 바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245-246)

그러면 그와 같은 ‘복음’이 어떻게 혹은 어떤 매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도달하였는가?

그 이야기는 교회의 살아있는 기억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용가능한 것이 되었다. 이 공동체는 아주 처음부터 성령의 사역에 의하여 예수님 안에서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파송되어진 분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 공동체는 예수님에 대한 아주 초기 기록들, 초기 증인들의 말씀들과 행동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러므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성경(구약)인 글 모음을 보존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한 세대로부터 다른 세대로 전수시킴으로써 그 기억을 계속 살아있게 하였다.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 이야기를 푸는 해석학적 열쇠이지만, 그리하여 교회는 그 글 모음 전체를 향후 발전하는 복음에 대한 해석과 그것의 함축들에 대한 검증규범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하였고, 받아들였다.(246)

그런데 목격자들은 자신들의 복음 선포가 받아 들여 지기도 하고 반대에 부딪히기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 오직 성령의 사역이 아니고는 복음진리를 사람들에게 확신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무엇 보다고 그 첫 증인들은 자신들의 진리가 결코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공적인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개인적 영혼구원을 위하여 로마제국의 보호막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위탁된 복음진리야 말로 전 인류의 운명(the destiny of the whole human race)에 관한 것임을 확신하였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은 세상의 구세주요 심판주이시다. 이 소식은 모든 인류의 생사에 관한 것이었다. 그것은 **공적인 진리**였다. 그것에 대한 신실성은 황제를 지고의 권력자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중대 결단을 요청하였다. 그들은 이와 같은 신실성을 위하여 지불되어야 할 값을 치렀다.”(246)

끝으로 저자는 다원사회에서 복음과 복음신앙에서 출발하는 공적인 영역의 각 분야와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복음과 그것의 선포는 대화를 전제하거나 대화의 소산이거나 대화에 달린 것이 아니다. 역시 ‘지성을 추구하는 신앙’의 관점에서 공적인 영역들에서의 ‘대화’의 필요성과 자리와 역할을 말한다.

교회의 첫 번째 책임은 일어난 일들(사건들)에 대한 신실한 증언에 있다. 그러나 이것은 대화로 인도하여야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증언하는 공동체는 복음 메시지가 어떤 결과를 가져 올 것인지, 복음에 대한 수용이 인간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어떤 결과들을 초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미리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약성서에 따르면 복음이 이스라엘로부터 이방나라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회는 그것의 함축들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했다(그것으로 놀라기도 하였지만)(예컨대, 행 10장과 11장). 이와 꼭 같은 방식으로 교회는 복음이 (예컨대) 경제 교육 그리고 치유의 세계들을 위하여 어떤 함축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배워 알아야 한다. 이것은 오직 대화를 통하여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요 16:12-15) 이 대화를 통하여 새로운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 (347)

정리하면, 저자는 복음의 공적인 본성과 그것의 전수과정과 공적인 영역들에서 믿음에서 출발하는 대화의 절실한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공적인 복음진리는 ‘보편사’의 일부인 공적인 영역들과의 생명적인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말이다. 믿음을 전제하는 대화야말로 공적인 복음을 공적인 영역으로 인도할 것이다.

IV.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야기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공동체

이 글은 ‘Ⅲ. ‘성서의 하나님 나라 복음 이야기의 공공성’에서 주로 뉴비긴의 주장을 소개하였다. 이제 필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야기’와 ‘교회 공동체’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한다. 종교개혁은 ‘믿음은 듣는데서 온다.’(fides ex auditu Verbi Dei)(루터)고 하였고, 이 믿음은 ‘성령의 주된 열매(the principal work of the Holy Spirit)’(Inst. III. i, 4)(칼빈)라고 하였다. 즉,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밖으로부터 오는 말씀’(Verbum externum),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야기’를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나라에 대한 희망 속에서 사랑과 정의를 가지고 ‘역사’와 ‘창조’ 속에 ‘하나님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것이 다른 아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다.

환언하면, ‘성서의 하나님 나라 복음 이야기’는 진정한 신망애의 공동체를 창조한다고 하는 말이다. 하나님 나라 혹은 새 하늘과 새 땅은 모든 인류와 창조세계를 아우른다고 하는 뜻에서 **보편적이고**, 인간의 수용이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와 창조세계에게 그냥 주셨다고 하는 점에서 **객관적이며**, 구약의 약속사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 지고 약속되었다고 하는 의미에서 **종말론적 희망인데**, **교회란** 이 하나님 나라를 생명의 영의 역사로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수용한 특수 공동체이다. 이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택정** 함을 입은 공동체로서 ‘역사’와 ‘창조’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다. 바로 이와 같은 교회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공적인 공동체요, 나아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장(場)인, ‘역사’와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에 참여한다.

V.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에 비추어 본 '교회와 세상'의 공공성

뉴비긴의 해명서 전체를 꿰뚫어 보기만해서 우리는 미래 지향적 하나님 나라(새 하늘 새 땅)의 공공성을 발견하였다. 뉴비긴은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개인들의 역사들과 미시사들의 자리와 역할과 기능 까지도 인정하고 있지만 말이다. 어찌 됐든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에 근거하여, 교회의 예배 설교 세례 성만찬 코이노니아 교육 전도와 선교 그리고 세상을 향한 기타 모든 활동들의 공공성을 주장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에 대한 신앙고백은 모든 교파들의 역사적 사회문화적 맥락들로 인한 주관적 차이들로 인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의 통일성을 보장하고 교회들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담보하는 바, 이와 같은 교회 공동체는 '성서의 하나님 나라 복음 이야기'가 약속하는 하나님 나라의 미리 맛봄이요 징표요 도구이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 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엡 1:14).

1. 생명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의 중심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 예수는 역사와 우주만물의 주님으로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더 보편적이게 하셨다. 죄와 죽음과 흑암의 권세를 묵시적으로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모든 부정성을 부정하는 그의 부활(the negation of the negative)은 개인에게 부활의 몸을, 역사에게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우주만물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계시하고 약속하기 때문이다. 그는 다름 아닌 영생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계시하시고 약속하셨다. 이는 새 창조의 세계(creatio nova)이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새 인류와 새롭게 된 우주만물이 함께 어우러지는 살롬의 '생명의 공동체'이다.

공관 복음서의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소외되고 억압 받는 자, 죄인과 세례, 그리고 여성을 편애하심으로, 인류 전체에 대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앞당겨 보여주셨고,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편애(preferential option for the people of God)를 통해서 인류 전체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는 인류와 지구 생명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 창조의 세계를 계시하시고 약속하셨다. 이사야 11:6절, 이사야 65:17-25절, 계시록 21:24, 26, 계시록 22:1-2, 계시록 22:3-4절은 결국 위에서 언급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고 약속된 미래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혹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킨다. 바로 이 미래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는 인류와 모든 피조물들이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롬 14:17)을 누리는 살롬의 '생명공동체'일 것이다.

이스라엘과 교회와 인류가 희망하는 종말론적인 '생명공동체'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지배하는 세계(암 5:24), 정의와 평화가 입맞춤하는 세계(시 85:10),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세계(레 25:10),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자들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는 세계(사 25:7-8; 마 25:38-40), 압제와 소외와 폭력이 더 이상 없는 세계(사 58:6-7), 곧 살롬 공동체이다. 그것이 다른 아닌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이다. 특히,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소외된 자와 억압 받는 자, 과부와 고아, 그리고 버림받은 자를 사랑하는 나라였으니, 이는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미리 맛봄이요, 그 징표요, 그것을 일구는 도구였다. 그리하여 초기 교회 역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이어 받아서, 유무상통의 사도적 공동체(행 2:43-47)를 추구하였고, 빛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시키며, 창조세계를 쉬게 하는 레위기 25장의 희년이야말로 창조세계까지 한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는 ‘생명공동체’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공동체성은 가장 가난하고 약한 이웃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듯 행해야 하고(마 25), 몸과 지체의 관계(고전 12)에서도 가장 연약한 지체의 아픔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

2. 삼위일체 하나님과 생명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사이의 사랑의 끈이신 성령은 ‘생명의 부여자’(the life-Giver)(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로서 모든 생명을 사랑하신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요, 죽음의 권세와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모든 지구생명 공동체를 사랑하신다.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일어나리라고 예언했던 대로 성령께서는 ‘모든 육체’(행 2:17; 욥 2:28) 위에 부은바 되기 시작하였고, 충만히 부은바 될 것이다. 모든 생명체들 안에 내주하시면서(시 104:29-30; 행 17:25, 27-28) 초월하시는 성령은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세상(cosmos)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성자를 보내 주셨고, 성령을 파송해 주셨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복음)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모든 인류 및 지구 생명 공동체와의 화해하시고,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갖기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이다.

복음의 목적은, 삼위로 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역사과정과 우주를 자신의 코이노니아에 동참시키시는 데에 있다. 내재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자체(immanent Trinity) 내의 코이노니아는 역사과정과 우주를 새롭게 하여 포함하는 경제적 삼위일체 하나님(economic Trinity)의 코이노니아로 발전하고, 나아가서 인류와 만유를 품에 안으시는 영광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을 희망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인류 및 우주만물과 충만한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성령 충만한 세계를 이룩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장차 올 세계의 삶’(the life of the world to come)(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 381)은 영혼과 몸, 개인과 사회, 인류와 창조세계가 사랑과 정의의 관계를 갖는 새 창조의 세계이다. 성령은 이 새 창조의 세계에서 영혼과 몸 사이, 개인과 사회 사이, 인류와 자연 사이를 잇는 사랑의 끈(코이노니아)이다. 이 성령은 인간과 지구

생명 공동체의 모든 생명들을 연결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상호 의존케 하신다. 종말론적 소망은 오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사랑과 정의의 살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인류사회 및 지구 생명 공동체가 정의롭고 평화롭게 공존공생하기를 갈망한다. 이것이 풍성한 생명이요, 풍성한 삶이다.

인간의 성령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수용(교회의 신망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missio Christi = the history of Christ)와 ‘성령의 선교’(missio Spiritus = the history of the Spirit)가 일어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란 삼위일체의 제2 위격인신 하나님의 아들로써 성육신하시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 교역을 하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시어,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계신 분의 역사를 말하고, 성령의 선교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시고 세례 시에 강림하셨으며, 갈릴리 교역에 동참하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가능케 하셨으며,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 교회를 탄생시키신 분의 선교를 말한다. 바로 이 성자의 선교와 성령의 선교는 성부 하나님의 선교이다. 성부로부터 파송 받으신 성자(아들의 역사)의 종말론적인 구속사역은 아버지로부터 파송 받으신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졌다(성령의 역사).

3. 생명 공동체로서 교회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복음(아들)을 받아들여 아버지로부터 새 생명(이신칭의와 성화의 삶)을 선물로 받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종말론적 영광의 살롬 공동체를 미리 보여주는 공동체요, 그것을 바라보는 잠정적 공동체이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에 동참함으로써 종말론적 살롬 공동체의 코아노니아(삼위일체 하나님이 인류 및 만유와 함께 누리는 코이노니아)를 미리 맛본 대표적 공동체요 잠정적 공동체로서 풍성한 삶을 미리 보여주고 미리 맛보고 증거 하는 공동체이다. 사랑의 성령의 전인 교회는 성령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세계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하고, 풍성한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 교회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지구 생명 공동체와의 이분법적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정의의 살롬 공동체를 일구어 가야 한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얻게 되는 초보단계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복음의 목적인 영생과 하나님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이 땅 위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더 풍성한 삶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풍성한 생명’(요 10:10)이란 총체적 차원에서 사랑과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살롬 공동체의 삶이다. ‘풍성한 삶’이란 복음전도,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정의, 경제정의, 창조세계의 회복과 지구생명 공동체의 추구, 통전적 영성 추구,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과 공동체성, 폭력을 극복하기 위한 평화운동 및 남북 평화통일이 실현되는 세계의 삶이다. 교회는 종말론적 살롬 공동체를 미리 맛보면서, 이 땅 위에 살롬 공동체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풍성한 생명의 의미요, 풍성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교회는 살롬의 ‘생명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역사와 우주만물 속에 구현하
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다. 교회는 성령의 지도하에서 ‘하나
님의 선교’의 대행자이다. 몰트만에게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상 관여는 교회의
영역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 타종교들, 세속 세상 및 창조세계를 포괄한다.¹⁰⁾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류 및 만유는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평화의 나라
(creatio nova) 안에서 상호 교류하고 상호 내주하는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다. 바
로 이것이 이스라엘과 교회와 인류가 희망하는 살롬의 ‘생명공동체’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종말론적인 살롬의 ‘생명공동체’의 미리 맛봄이요, 표징이요,
그것을 일구는 도구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의 몸의 지체요, 그의
양이요, 그의 형제요, 그의 친구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령의 전으로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롬 14:17)을 미리 맛본 생명의 공동체이다. 교회는 성령
께서 공급하시는 사랑으로 성도들 상호 간에 서로 내주하고 교류하며 교제하는 예
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생명공동체”이다.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여 이신칭의에 이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정
의와 사랑과 평화를 구현하며, 장차 다가 올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는 삼위일체 하
나님의 형상으로서 교회는 ‘생명공동체’이다.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회 공동체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과 새롭게 된
인류 및 우주만물이 함께 어우러지는 살롬의 생명공동체를 위한 도구이다. 그래서
벧전 2:9-10은 교회를 가리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 하였다. 구약의 구속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그리하여 신약의 구속사 역시 인류와 만유가 삼위일체 하
나님의 페리코레스시스적 교제와 공동체에 동참케 하는 하나님의 선교요, 교회의 선교
인 것이다.

4. ‘생명공동체’로서 교회의 자리와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미’ 이루어진 살롬의 ‘생명공동체’(하나님 나라)와 “아
직” 이루어지지 않은 살롬의 ‘생명공동체’(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성령의 역사로 사
도적 직무(the apostolate)를 수행해야 한다. 이로써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를 역사
와 창조세계 속에 앞당겨 실현하는 것이다. 사도적 직무란 메시아에 의해서 위임되
었고, 메시아 왕국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설교, 세례와 성만찬, 코이노니아, 교육, 사
회봉사, 복음전도, 하나님의 선교, 정의와 평화와 창조세계의 보전, 그리고 교회의
일치추구를 말한다. 교회의 사도적 직무란 이처럼 살롬의 ‘생명공동체’를 추구하는
모든 활동을 일컫는 말이다. 그런 즉, 세상 속으로 파송 받아 사도적 직무를 수행하
는 교회는 ‘하나의 보편적 교회’(una, catholica)이다. 교회의 진정한 ‘보편
성’(catholicity)이란 교회 밖의 보편적인 세계의 온전한 회복과 우주적 차원의 회복
(예1 1:10; 골 1:15-20)이 없이는 값싼 ‘보편성’이다.

10) J. Moltmann, *The Church in the Power of the Spirit*(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7)pp. 65-66.

하나님 나라에서 기원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하고, 세례를 통하여 믿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편입시키며,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축하하해야 한다. 그리고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아야 하며,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교육해야 하고, 사회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 해야 하고, 복음전도와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널리 증거하고 구현시켜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사도적 직무를 에큐메니칼하게 수행함으로써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한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다. 이는 살롬의 생명공동체를 지향하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trinitatis)에의 동참에 다름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미리 맛봄이요, 징표요, 그것을 구현하는 도구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유사성과 반영과 비유요, 하나님 나라의 전조와 여명이요, 하나님 나라의 선취이다. 때문에 교회는 메시아적 공동체로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교회가 역사의 지평 속에서 감당해야 할 정의, 평화, 창조세계의 보전을 위한 모든 활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의 동참이다. 그러나 역사와 우주만물의 과정에 참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와 우주만물을 통해서도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파편적으로 미리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의 미리 맛봄이요, 그것의 징표요, 그것을 구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보편사와 우주만물 역시 그렇다는 말이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 속에 있는 역사와 우주만물의 과정 역시 종말론적으로 완성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파편적인 상응(correspondences)이요, 부분적인 유사성(likeness)이요, 희망의 유추(analogia spei)이다.

보편사 속에 있는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 모든 인간다움과 아름다운 덕목들, 인간의 아름다운 꿈의 실현들, 그리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우주만물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의 ‘파편적인 표지판들’(fragmentary sign-posts)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와 세계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표지판들을 세워 나가는 일에 동참하고 있고, 동참해야 한다. 교회는 성경의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이미 세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지판들을 따라서 역사의 지평 속에 이와 같은 표지판들을 세워 나가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표지판들이 이 세상 속에 세워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사유화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다. “의의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벧후 3:13),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작은 자들에 대한 따뜻한 사랑(compassion), 예언자들이 선포한 공의와 정의의 나라, 레위기 25장의 희년의 이상(理想)과 누가복음 4장의 은혜의 해의 이상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사유화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 모든 앞 당겨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공적인 일(public affairs)에 해당한다.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살롬의 ‘생명공동체’ 형성은 전적으로 공적인 일이다.

5.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본질

첫째로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유기체적 공동체성**에 있다. 그것은 **생명공동체**이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성령의 사역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사랑과 정의)에 이르고 나아가서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에 합체되며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은 상호 의존적인 부분들로서 머리를 통하여 통일성을 추구한다.

그런데 이처럼 상호 의존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다양한 지체들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과 분리하여 생각될 수 없다(참고: 고전 12:3-13). 그리스도의 모든 지상 사역이 성령의 사역에 의한 사역인 것처럼 몸의 지체들의 다양한 사역들 역시 성령의 사역에서 그 다양성과 통일성을 찾는다. 따라서 교회는 ‘성령의 전’(엡 2:21-22; 벧전 2:5)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백성’(벧 2:9) 공동체이다. 그런즉, 이와 같은 교회의 공동체성은 “생명공동체”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리 맛봄이요 그것의 징표요, 그것을 일구는 도구이다.

둘째로 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 사명은 무엇일까? 그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좋은 소식인 복음을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써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둘은 세상 속에서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기쁨과 같은 하나님의 통치의 가치들을 삶으로 옮기고 그것의 미리 맛봄이 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다. 나아가서 교회는 자신의 삶으로 구원의 신비와 인류의 변형을 미리 앞당겨 체험하고 보여줌으로써 만유를 하나님께 화해케 하고(고후 5:18-21; 롬 8:18-25), 인간 상호간의 화해를 구현하시는 그리스도의 선교에 동참해야 한다. 그런즉 교회는 자신의 공동체성에 근거하여 그리고 그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하나님의 세상에서 ‘복음전도’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로 교회 공동체의 존재이유인 ‘복음전도’와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은 무엇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는 모든 피조물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모으시고(참고: 엡 1:10), 인류와 모든 피조물을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코이노니아로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룩하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교회는 이 목적을 섬기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하고, 이로써 모든 사람들을 믿게 해야 한다(요 17:21).

그런즉, 예배를 드리고, 세례와 성만찬을 베풀며, 기독교의 진리들을 가르치고, 친교를 나누며, 봉사와 제자의 도를 행하는 교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 올 ‘생명공동체’인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는 가운데 교회 밖의 영역에서 ‘복음전도’와 ‘하나님의 선교’를 통하여 ‘생명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 성경이 교회를 “신비”(엡 1:9-10; 5:32)라고 부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질 초월적이고 미래적인 실재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는 종말론적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의 징표와 도구이다. 교회는 장차 도래할 ‘생명공동체’(하나님 나라)의 미리 맛봄이요 **담보요** 예언자적 징표요 이 하나님 나라를 역사와 창조세계 속에서 실현하는 도구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총체적 ‘생명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교회가 먼저 이상과 같은 ‘생명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6. 월겐 몰트만에 있어서 교회의 밖에서 발견되는 하나님 나라의 징표들

몰트만은 교회 밖의 하나님 나라를 주장한다. 그는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보편사와 창조세계 전체 속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미리 맛봄과 그 징표와 그것을 일구는 도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몰트만은 교회의 역사참여 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메시아의 역사 참여에 동참하는 교회의 역사 참여와는 별도로 이 역사 참여의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는 일반 역사 속에서 그의 ‘폭발적’이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는 역사를 창조해 나가신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것을 ‘죽음의 악순환’으로부터의 ‘해방을 향한 길들’이라고 하여, 하나가 다른 하나와 연쇄적으로 고리를 물고 있는 (1) 삶의 경제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빈곤의 악순환’, (2) 정치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힘의 악순환’, (3) ‘인종적, 문화적 소외의 악순환’, (4) 과학과 기술, 그리고 산업화에 따른 ‘자연파괴와 오염’, (5) ‘무감각성과 무의미성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음의 악순환’으로부터의 해방의 돌출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였다.¹¹⁾

몰트만은 이와 같은 ‘해방을 향한 길들’의 다섯 차원 모두에서 해방이 일어나야만, 삶 전체를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으로 본다. 이는 역사의 지평 속에서 분별되고 발견되는 하나님 나라의 파편들이요, 징표들이요, 표지판들이요, 미리 맛봄들이요, 그것을 일구는 도구인 것이다. 파편을 찌르는 바로 이 시기의 몰트만(해방자가에 달리신 하나님만을 저술한 시기) 신학이 방금 위에서 지적한, 보편사 속에서 발견되는 “메시아적인 파편들(messianic fragments)”¹²⁾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몰트만은 1980년대부터 ‘역사’뿐만 아니라 ‘창조세계’(생태학적 위기)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와 같은 메시아적 파편들을 창조세계의 생태학적 회복과 기후변화의 극복 등에서도 발견한다.

나가는 말

이 글은 ‘I. 기독교의 사사화’에서 근대 서구의 기독교와 우리 한국 기독교가 복음과 교회와 기독교 신학의 공공성을 상실하였음을 지적하였고, ‘III. 성경의 이야기 속에 있는 복음의 공공성’에서 성경 이야기 속에 있는 복음은 그 자체로서 공공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레슬리 뉴비긴)을 논했다. 그리고 ‘IV.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야기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공동체’에서는 비록 교회가 저 ‘성서 이야기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성령의 은혜에 의하여 신망애로 수용함에 있어서,

11) Jürgen Moltmann, *The Crucified God*, p. 330-331. 참고: Ibid, pp. 332-335.

12) Geiko Mueller-Fahrenholz, *The Kingdom and the Power*(London: SCM Press, 2000) pp. 121 이하.

역사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컨텍스트 속에서 다양한 주관적 양상으로 표현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의 진리는 ‘보편적인 의도’(universal intent)를 가진 것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진리’요, ‘공적인 진리’(뉴비긴)라고 하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우리는 ‘V.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에 비추어 본 ‘교회와 세상’의 공공성’에서 6가지 항목을 논했다. 여기에서 필자는 ‘교회 대 세상’이라고 하는 종전의 이분법을 지양하고, 교회와 세상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부터 보았다. 그래서 하나는, 우선 하나님 나라를 ‘생명공동체’로 본 것이고, 둘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생명공동체’로서 하나님나라의 관계를 밝혔으며, 셋은 ‘생명공동체’로서 교회가, 성령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실현될 ‘생명공동체’(새 하늘 새 땅)를 미리 맛보고 미리 보여주며, 그것을 일구는 도구임을 논했고, 넷은 ‘생명공동체’로서 교회의 자리와 역할을 논했다. 그리고 다섯은 하나님 나라에 비추어서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였고, 끝으로 교회 밖에서(‘역사’와 ‘창조’)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지판들(몰트만과 파렌홀츠)을 언급하였다.

그런즉, 우리가 이상과 같은 복음의 공공성과 교회 및 기독교 신학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주장하는 한, 우리는 모든 교회 재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이다.

■ 패 널 토 의

‘공공재로서의 교회재정’에 대한 좌담

사회자



황병구 본부장
재단법인 한빛누리

패널 1



김재수 장로
샘물교회 사무처장

패널 2



정성규 목사
예인교회

패널 3



이형기 교수
공적신학과교회연구소 소장
장로회신학대학교 명예교수

■ 메 모



■ 단 체 소 개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소개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한국교회 구조회복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교회재정운영에 있어 성경의 원리에 근거하여 건강하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하여 도출된 결과들을 교육하고 배포하고 실천하여 교회현장에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가는 운동을 합니다.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문의

전화 02-741-2793

홈페이지 www.cfan.or.kr

팩스 02-741-2794

전자우편 cfan05@hanmail.net

■ 목적(사명)

한국교회가 재정을 건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온전한 교회로서 대사회적 신뢰를 받도록 한다.

■ 운동전략 및 실행계획

- | | |
|------------|--|
| 1. 연구와 개발 | 성경적 교회재정관 정립, 한국교회 교회재정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 모범사례 발굴, 대안제시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
| 2. 배포 및 홍보 | 홈페이지 운영, 재정사용 원칙제시, 재정정관 및 조례 보급, 재정관리 매뉴얼화 및 책자보급, 회계프로그램 보급 및 재정담당자 교육 |
| 3. 교회현장 운동 | 목회자납세 운동, 재정결산서공개 운동 |
| 4. 교육과 컨설팅 | 세미나 및 강좌 개최 및 연구물 발표, 재정문제 상담, 건강한 역할모델 육성 |

■ 함께하는 단체들

교회개혁실천연대

- 주소_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55-1 영남빌딩 205호
- 전화_02-741-2793 · 홈페이지_www.protest2002.org
- 팩스_02-741-2794 · 우편주소_protest@protest2002.org

기독교경영연구원

- 주소_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32 신원빌딩 1층
- 전화_02-718-3256 · 홈페이지_www.kocam.org
- 팩스_02-718-3528 · 우편주소_kocam@kocam.org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주소_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 전화_02-794-6200 · 홈페이지_www.cemk.org
- 팩스_02-790-8585 · 우편주소_cemk@hanmail.net

바른교회아카데미

- 주소_서울시 중구 남산동 2가 19-8번지 청어람
- 전화_02-777-1333 · 홈페이지_www.goodchurch.re.kr
- 팩스_02-319-1103 · 우편주소_gcacademy@hanmail.net

재단법인 한빛누리

- 주소_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83-2번지 2층
- 전화_02-924-0240 · 홈페이지_www.thebrightfoundation.org
- 팩스_02-924-0243 · 우편주소_thebrightfd@gmail.com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가 2005년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한 온전한 교회로서의 대사회적 신뢰회복을 목표로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